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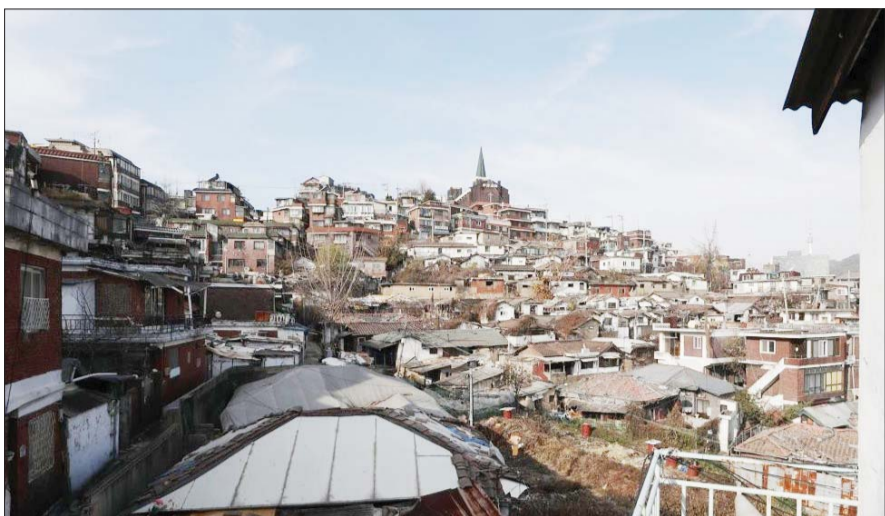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잡아라... 시공사 수주전 '후끈'

갈현1구역, 롯데건설 수의계약 유력
신반포21차, GS·포스코건설 2파전
반포1단지3주구 두고 삼성·대우 경쟁

서울에서 전개될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면서 오는 6월까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갈현1구역이 오는 23일 시공사를 선정하고 28일 신반포21차, 30일 반포주공 1단지3주구, 6월 20일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이 시공사 총회를 연다. 이들 정비사업장의 공사금액을 합치면 약 3조 7000억원에 달한다.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에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다. 현대건설이 이주비 제안 등의 문제로 입찰 무효가 선언되면서 다시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달 말부터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서울 한남3구역 전경. /연합뉴스

두 번의 유찰 끝에 롯데건설의 수의 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갈현1구역은 평균 갈현동 300 일대 23만8850㎡를 재개발해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9200억원

규모다. 오는 28일 총회가 개최되는 신반포 21차는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의 2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신반포 21차는 2개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에서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가구를 짓는 사

업으로 공사비용은 102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공정률의 70% 시점에 일반 분양을 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GS건설은 프라이م 타임 분양제를 제안했다. 후분양을 포함해 착공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조합이 가장 유리한 시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상반기 강남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5년만에 정비사업에 복귀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반포3주구는 서초구 1109일대 1490가구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공동주택 2091가구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8087억원 규모다. 조합은 지난 19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열고 20일 공식 홍보관을 오픈했다. 오는 30일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는 용산구 한남3구역은 다음달 20일 시공사를 결정한다. 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곳이 최종적으로 참여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한남동 686 일대 38만639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예상 공사비만 약 2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과열 경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긴급 점검에 들어가면서 입찰이 무효화 됐다. 향후 한강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사업자인 만큼 어느 시공사가 선정될지 관심이 높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자금조달과 함께 브랜드 파워가 결정되는 이슈이고, 사업조건이 결정되는 시점이어서 조합원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내달 대단지 분양 쏟아진다... 1.4만가구 공급 소비자도 간편하게 설치 '창문형 에어컨'

대단지 아파트, 편의시설·교통 장점
1000단지이상 대단지 분양 전국 17곳
전체 분양물량 중 대단지 절반 넘어

오는 6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된다. 대단지 아파트는 단지 주변으로 생활 편의시설과 교통이 확충되는 경우가 많다. 불황에도 시세 하락에 대한 불안도 덜하다.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도 다양하게 갖춰지며, 관리비도 소형 단지에 비해 적은 편이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에서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17곳이다. 일반분양만 1만 4597가구다. 6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이 2만 2321가구임을 감안하면 대단지 물량이 절반을 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인천(4857가구), 경남(3833가구), 대구(3027가구), 충남(2491가구) 순이다.

인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84~155㎡ 1100가구를 분양한다. 대구 모 단지 답게 커뮤니티시설도 다양하다. 미세먼저로부터 자유로운 차별화된 실내 키즈 놀이터인 H 아이숲과 O2 어린이집, O2골프라운지 등이 꾸며진다. 단지 주변으로는 근린공원이 많고 송도 워터프론트호수와 서해바다도 인접해 있다.

인천 서구에서는 일성건설이 '가재울역 트루엘 에코시티' 49~84㎡ 1218가구(477가구 일반분양)를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인천 서구 도서관, 나은병원, 홈플러스 등이 인접해 있고 주변으로 학교와 숲, 공원 등도 잘 갖춰져 있다.

지방에서는 대우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천안성성2지구 A1블록에서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

74·84㎡ 1023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KTX 천안아산역, 경부고속도로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마트(천안서북점), 롯데마트(성정점), 코스트코(천안점) 등이 가까운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또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도 2021년까지 조성된다.

부산에서는 롯데건설이 부산진구 부암 1구역을 재개발할 지역에 분양하는 '부암1구역 롯데캐슬(가칭)' 2195가구 59~101㎡ 144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에서는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사송 더샵 데시앙 2차'를 공급한다. 3개 블록(B5, B6, B7), 74~84㎡ 2084가구다. '사송신도시'는 약 276만㎡ 부지에 1만4900여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다. 부산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냉방 성능·낮은 소음 등 기능

설치가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적지 않았던 에어컨이 생활 깊숙히 더욱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관련 기업들이 베란다가 아닌 거실이나 방 창문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들을 속속 내놓으면서다.

특히 창문형 에어컨은 실외기를 위해 벽에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이 필요없고, 소비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어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제품으로까지 부상하고 있다. 이사를 할 때 손쉽게 떼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최근 집에서 주문하고 배달받은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을 내놓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귀뚜라미가 선보인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은 정격 냉방 능력이 2450W로 높고, 자동 풍량 조절, 제습 기능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2

파세코는 지난해 출시한 '창문형 에어컨 1'에 이어 올해 2호 모델을 지난달 선보였다. 삼성의 인버터 컴프레서를 장착, 취침모드 기준 44대시벨(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준)까지 낮췄다.

특히 이 제품은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 TV홈쇼핑을 통해서만 6000대 이상 판매되며 4~5월 사이에만 1만대 판매를 훌쩍 넘겼다.

냉·난방 가전 전문기업인 한솔일렉트로닉스도 '창문형 에어컨(HSW-7720KR)'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가격도 40만원대 후반으로 경쟁력이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이스타항공노조 "정리하고 중단하고 운항 재개하라"

"생계 걱정 노동자 고통 안중에 없어"
의도적 이스타항공 파산 전략 의심

"정리하고 중단하라! 항공운항 재개하라! 체불 임금 지급하라!"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제주항공은 정부의 지원축소를 빌미로 자기들이 체불임금을 떠맡지 않겠다고 주시매매계약서에 반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안중에 없는 것"이라며 "제주항공 측의 요구를 받은 이스타항공 사측은 인원조정 문제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24일 국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이스타항공 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수지 기자

적 항공사 중 처음으로 국내선 운항까지 점으면서 전 노선 첫다운에 돌입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며 다른 항공사들이 국내선 운항 재개에 나섰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 20일 외려 모든 노선의 운항을 내달 25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제주항공은 해외 노선 결합 심사를 핑계로 인수를 지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매각대금을 낮추려는 의도임이 드러났다. 제주항공이 회사 상황을 더 악화시킨 후 인수를 포기해, 이스타항공이 결국 파산한다면서 이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 '카고도어' 후속 납품 계약

항공기 부품 제작 기술력 성장 기회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공기 구조물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다.

대한항공은 최근 에어버스의 자회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A350 항공기 카고도어 후속 물량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1년 총 800대에 달하는 A350 항공기 카고 도어에 대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2년 A350 항공기 카고 도어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현재까지 500여대 분량의 카고 도어를 납품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800대 분량을 납품한 이후 추가로 400대의 A350 항공기 카고 도어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이 설계 및 개발한 A350 항공기 카고 도어는 전방 카고 도어, 후방 카고 도어, 벌크 카고 도어 등 모두 3개의 도어로 구성돼 있다. 카고 도어는 운항 중 안정성과 직결되는 동체 부분의 주요 복합재 구조물로 고도의 정밀성 등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번 계약으로 에어버스 및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3D 프린팅 부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게 돼, 항공기 부품 제작 기술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